

카드연체 안하면 신용등급 쟁총

* KB 국민카드와 함께하는
즐거운 카드 라이프

- ▶ 남녀 카드생활 탐구
- ▶ 신용관리 이렇게 하라
- ▶ 카드 부채사용방지 노하우

돈을 꺾달라는 친구의 전화를 받은 A씨. 섣불리 'OK'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평소 연락도 자주하고 빌려간 돈도 제때 돌려주던 친구의 전화라면 모르겠지 10년 동안 연락이 없던 고등학교 동창생의 갑작스런 부탁이었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 빌려간 돈을 한 번도 갚지 않았던 터라 고민이 더 많다. '개인 신용'의 예다.



신용등급 높이려면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건 소득에 맞춘 소비패턴
평소 연체 하지않게 각별히 신경써야

이러한 이유에서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 바로 '신용등급'이다.

신용정보와 등급 산출 기준은?

신용등급은 어떻게 산출될까. 우선 근거가 되는 정보가 필요하다. 신용정보라 부른다. 기본적으로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가 담긴다. 대출현황과 보증, 신용카드, 당좌예금 개설 여부 등의 거래내용도 포함된다. 금융거래 연체와 부도 또는 신용질서 문란 행위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세금의 체납, 법원의 심판, 결정 등 공공기관 보유 정보 등도 필요로 한다. 이상의 신용정보를 종합해 개인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신용정보를 모을 수 있는 기관은 제한돼 있다. 법률상 금융기관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사에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다. 단 여신거래에 있어서는 타사와의 거래현황을 알아야 안정적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신용정보를 모으는 기관은 은행연합회

와 신용정보회사가 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가 집중되는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다. 신용정보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자료와 통신, 유통, 기타 기업 등으로부터 통신요금과 채권연체 정보 등을 수집해 제공한다.

은행연합회가 대출, 불량기록 등과 같은 정보를 주로 수집한다면 신용정보회사는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해 산출되는 등급 정보를 관리한다. 신용정보회사는 개인 정보를 다루는 만큼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신용등급의 의미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점수를 내고 등급을 산출한다. 신용등급 산출에 적용되는 정보는 채무불이행, 거래기록, 대출, 채무보증, 연체 등이다. 각 회사마다 점수의 가중치나 평가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도 회사마다 등급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융사는 1등급의 고객보다는 8등급에 속하는 고객이 돈을 갚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하게 된다. 결국 신용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저렴한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다.

반면 등급이 낮으면 금융기관은 돈을 빌릴 위험성을 반영해 좀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최대한 적은 금액을 빌려주려고 한다.

신용등급 관리는 이와 같이 경제적 이익과 직접 연결돼 있다. 때문에 평소 연체를 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소득에 맞는 소비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영근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신용등급이 뭐죠?

돈 돌려받을 수 있는 정도 수치화한 것
대출·보증·신용카드 정보 통해 등급화

평소 알고 지내는 정도나 약속 이행 여부가 한 사람의 신용을 결정짓는 척도가 된다.

금융 거래에서의 신용은 더욱 중요하다. 금융 회사가 빌려준 돈을 못 받아 부실화 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일상에서처럼 '속는 셈치고 빌려주는 것'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이유다.

금융회사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준다. 통계를 이용해 등급을 만들고 각종 자격 등을 점수화 하는 것도 다



신용등급을 올리는 팁

지난달 깜빡 과소비...KB국민카드 '페이플랜' 알면 걱정 뚫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소득 대비 적절한 대출거래와 신용카드 거래를 연체 없이 오랜 기간 지속하는 것이다.

연체기록이 남으면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연체된 기간만큼 자료를 보존하게 된다. 연체를 정리한 후에도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지 않는 이유다. 등급을 올리려면 기록이 삭제되는 시점까지 금융거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은행연합회에는 50만원 이상의 카드론이나 카드대출연체가 90일 동안 지속될 경우 연체기록이 남는다. 50만원 미만의 금액은 소액신용관리 대상자로서 기록이 남지 않으나 신용정보회사에는 연체사실이 전달돼 등급이 떨어진다. 대출상당이나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신용정보 조회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은 없다. 연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소득대비 적절한 소비를 하는 것이다. 카드를 잘 이용하는 것도 신용등급을 올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1 연체걱정 뚫!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를 쓰자니 자기도 모르게 많이 쓰게 될 것 같아 꺼리지고 현금을 쓰자니 불편하고 할인혜택이 없어 고민이 된다면 체크카드가 정답이다. 체크카드는 계좌잔액만큼만 소비할 수 있어 적절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체크카드의 할인 혜택은 신용카드 못지 않다. KB노리체크카드의 경우 교통과 통신, 영화, 외식 등 폭넓은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사용액의 30%까지 소

득 공제율이 올라 연말정산에도 유리하다.

2 뺑뺑한 달엔 일부만 결제 페이플랜

가장 현명한 소비는 소득 대비 적절한 금액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때때로 카드 결제금액을 내기 버거운 경우가 있다. 이 때 유용한 것이 결제금액을 할부로 내는 방법이다. 흔히 리볼빙이라고 알려져 있는 KB국민카드의 페이플랜 서비스는 결제대금 중 약속된 최소 금액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에 결제할 수 있게 해준다.

할부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고 연젠가는 갚아야 할 부채지만 연체에 따른 신용악화 및 연체료 발생은 막을 수 있다. 페이플랜을 사용해 이월된 결제 대금은 여유가

생기는 데로 먼저 갚을 수도 있다.

3 급박한 상황 채무 면제·유예서비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연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사망과 입원, 실업이 발생할 경우 카드사용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장범위 내에서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채무 면제·유예(DCDCS·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서비스'를 통해 서 연체를 예방할 수 있다. KB국민카드의 와이즈 크레딧 케어(Wise Credit Care) 서비스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결제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납입하면 질병, 장애, 사망, 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최대 5000만원까지 카드결제대금을 면제해 준다.

김영근기자

스타, 그때의 오늘

1995년 전유성 '택시로 여론 듣기' 첫 시도



택시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택시에는 수많은 직업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승객으로 오르내리며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눈다. 그 대화 속에 세상만사가 담겨 있다.

일부 정치인들이 택시를 운전하며 서민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여론을 얻어듣는 사례도 이미 새롭지 않다. 최근

에는 스타를 초대해 택시에 태우고 거리를 돌며 이야기를 나누는 한 위성·케이블TV 채널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

1995년 오늘, 이 같은 형식을 도입한 프로그램이 첫 방송됐다. SBS '생방송 인간탐험 뉴스따라잡기'가 첫 전파를 타면서 개그맨 전유성(사진)을 택시에 태웠다. 전유성은 거리에서 택시에 올라타 뒤이어 승객이 된 시민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첫 번째 소재는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였다.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전유성은 "지금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4000원 밖에 없다. 택시비다"는 사람, "평생 살면서 1억~2억원의 돈은 대체 어떻게 모아야 하느냐"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빗댄 이야기를 전했다. 전유성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강행군을 벌이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으자 MBC도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오늘은 좋은 날'에 개그맨 임하룡과 최병서를 등장시켜 택시 안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코미디로 재구성해 현실을 풍자했다.

또 1997년 초에는 장진 감독이 최민식, 임정화, 임원희, 신하균, 정재영 등이 출연한 블랙코미디 연극 '택시드립'을 무대에 올렸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트위터@tadada11

위메이드, MMORPG 대작 2종 내년 공개서비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2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종의 대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을 공개했다. '천룡기'(사진)는 자체개발 엔진 등 위메이드의 기술력을 총망라해 새롭게 제작한 MMORPG다. 검객과 협객, 술사, 도사 등 총 4개의 클래스와 문파, 연환무공 등 핵심 콘텐츠를 담고 있다. '네드'는 방대한 스케일과 미려한 그래픽, 탄탄한 구성의 스토리가 매력적인 정통 MMORPG다. 펠로우와 비행전투, 탑승 전투 등 완성도 높은 전투 시스템을 강점으로 한다. 위메이드는 천룡기와 네드의 공개 서비스를 각각 내년 1분기와 3분기로 계획하고 있다.

삼성 갤럭시S2 HD 출시...슈퍼 아몰레드 적용



삼성전자는 27일 세계 최초 HD 슈퍼 아몰레드를 적용한 4세대(4G)이동통신 통합에블루션(LTE) 스마트폰 '갤럭시S2 HD'(사진)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품

에 적용된 4.65인치 HD 슈퍼 아몰레드는 HD(1280X720)해상도 △멀티미디어 감상에 최적화된 16:9 화면 비율 △180도 광시야각 등 최적의 영상 환경을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3세대(3G) 이동통신과 비교해 최대 5배 빨라진 LTE 통신망을 통해 고화질 영상통화 △실시간 VOD 서비스 △네트워크 게임 등 다양한 고화질 콘텐츠를 HD 슈퍼 아몰레드로 더욱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가격은 80만원대 후반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모두 출시될 예정이다.

네오위즈, 골프게임 '홀인원 온라인' 비공개 테스트

네오위즈게임즈는 스마일게이트에서 개발 중인 신작 골프게임 '홀인원 온라인'의 비공개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11월 1일까지 약 일주일간 진행된다. 홀인원 온라인은 실제 골프와 마찬가지로 지형과 바람, 클럽에 따라 코스를 공략하는 전략적인 플레이는 물론 파워, 테크닉 등 성장 시스템을 통해 캐릭터 육성이 가능한 스포츠 게임이다. 테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ho.pmang.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근기자

스카치블루 이름만 빼고 짝 바꿨다...맛·디자인·향 UP

위스키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잡은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이재혁)의 '스카치블루 인터내셔널'(사진)과 '스카치블루 스페셜'이 한층 부드럽고 깊은 맛과 향, 그리고 품격 높은 디자인으로 거듭났다.

지난 1998년 출시된 이후 맛과 향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스카치블루 인터내셔널'은 스코틀랜드 최고 마스터 블랜더의 새로운 블렌딩 기술이 적용됐다. 맛과 향이 깊고 부드러운면서도 사탕처럼 달콤한 풍미를 가미해 한국인의 입맛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라운드형 유리병에 중후한 느낌의 종이라벨을 사용해 위스키의



은 고급 위스키의 정통성을 보여준다.

양형모 기자 rani@donga.com 트위터@rani361

정통성을 부각시켰다. 마개를 감싸는 슈링크 필름과 포장케이스를 골드컬러로 바꾼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다.

업선된 17년산 위스키 원액을 블렌딩한 '스카치블루 스페셜'은 달콤하고 스카치시한 풍미가 감미롭게 지속되는 여운을 가진 맛과 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디자인만 변화를 줬다. 중앙에 레드컬러로 표기된 '17'

유튜브 1000만 클릭 기아차 쏘울 햄스터 광고 후끈

기아자동차 쏘울이 최근 인기몰이 중인 듀오 LMPAO의 'Party Rock anthem'에 영화 같은 로봇 전투장면, 햄스터들의 신나는 서플댄스까지 무장한 채 돌아왔다. 유튜브를 통해 1000만 이상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은 영상(사진)이다. 미국에서 선보인 이 광고는 전 세계 블로거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기아자동차 쏘울 햄스터 광고는 미국에서 매년 시리즈로 제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챗바퀴를 굴리는 햄스터가 나오는 1차편, 토스터와 박스를 탄 햄스터가 나온 2차편이 방송돼 인기를 끌었다. 쏘울 햄스터 광고 3차편에



서는 로봇들의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에 햄스터들이 쏘울 GDI를 타고 등장해 서플댄스를 선보인다.

평범하고 지루한 전쟁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쏘울과 함께 더욱 즐거운 삶을 누리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책 랭킹

순위	제목	작가	출판사
1	자기혁명(시골의사 박경철의) 박경철		리더스북
2	도가니	공지영	창비
3	닥치고 정치	김어준	푸른숲
4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생앤파트너스
5	뿌리깊은 나무1	이정명	밀리언하우스
6	3무 경영	하지해	위즈덤하우스
7	알레프	파울로 코엘로 문학동네	
8	이제살고있고영원한행복의나라가있지아 우명		창출판사
9	마흔에 읽는 손자방법	강상구	흐름출판
10	완득이(양장본)	김려령	창비

1위 책 정보보기

10월 3주, 자료:교보문고

1위 책 정보보기

1위 책 정보보기

1위 책 정보보기

1위 책 정보보기

1위 책 정보보기

1위 책 정보보기

1위 책 정보보기

1위 책 정보보기

1위 책 정보보기

1위 책 정보보기

1위 책 정보보기

1위 책 정보보기

1위 책 정보보기

1위 책 정보보기

1위 책 정보보기

1위 책 정보보기

1위 책 정보보기

1위 책 정보보기

1위 책 정보보기